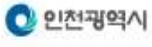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
		배포일자	2021년 2월 4일(목) 총 2매		
담당 부서	위생정책과	담당자	• 식생활안전팀장 소기호 ☎440-2771 • 담당자 임명택 ☎440-2772		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8,241개소 집중관리

- 식중독 사전예방 강화,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20회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1년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으로 ‘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코로나19로 소비가 급등하는 배달앱 등록업소 8,241개소를 중심으로 학교 집단급식소 548개소, 계절별, 사회적 이슈별 위생취약업소 4,940개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▲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여부 ▲무신고 영업행위 ▲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및 제품을 조리·판매 목적으로 보관·사용 여부 ▲냉동·냉장식품 적정보관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, 과태료 부과,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.

- 한편 지난해 식중독 발생이 4건으로 현저히 감소했으나 보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조리·배식 전 과정의 위생상태 점검, 식중독균 검사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20회 이상 실시하여 자율적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급식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.
- 최창남 시 위생정책과장은 “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한 식중독균 분석으로 과학적 위생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” 며 “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위생 감시로 안전한 급식·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 고 말했다.